



Ewha Medical School News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CMU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

발행인·한운섭 편집인·하은희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1-1 전화·02-2650-5709 팩스·02-2653-8891

제 2 호 <2004. 12>

*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소식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 개정소식

의과대학은 2007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전문대학원에 맞는 교육목표의 수립을 위해 교육목표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학생, 졸업생, 교수를 중심으로 교육수요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 교육목표의 타당성 검토, 의학전문대학원에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 수렴, 교육목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교육목표에 대한 방향성 등에 반영하였다.

기독교 정신, 국제성과 여성 리더십은 교육목적에 담고, 교육목적 아래 3개 항의 세부목표에 사랑, 전문성, 봉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목표를 만들게 되었다.

목적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애와 전문의학지식을 함께 갖춘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의료인을 양성한다.

-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바른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보살피며,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의사로서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다양한 분야를 이끌어갈 자기계발능력을 갖춘다.
- 사회에 봉사하여 존경받는 의료인
열린 마음과 탁월한 여성 리더십으로 이웃에 헌신하며,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봉사한다.

* 의대 홈페이지 개편

<http://medicine.ewha.ac.kr>

의과대학 홈페이지가 지난 12월 21일 자로 새로이 개편되었다. 홈페이지 주소는 이전과 동일하다. 새 홈페이지의 디자인은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컨셉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의과대학의 고유함을 살리고,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지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앞으로는 개편된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전달해드려야 할 사항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려드릴 계획이다.

- 의과대학의 새로운 소식은 “새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외협력” 게시판을 통해 기숙사 건립기금과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조성 등 대외협력위원회의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에 전해하실 말씀이 있으면 “열린마당”的 “자유게시판” 및 “건의사항” 등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단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야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본교 교육이념의 전달을 위해 “오늘의 말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실장님을 비롯한 4분의 교육님들께서 직접 매일 한구절씩 보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축소식



지난 12월 9일 별관동이 4층까지 완공되어 별관 개관식을 갖고 개관예배와 테일컷팅식을 가졌다. 이대목동병원 별관동은 연면적 4,336평,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2004년 12월 7일에 4층까지 먼저 환자, 보호자,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관하여 장례식장, 치과진료부, 건강증진센터, 병원행정부가 이전하게 되었으며 학생강의실 등의 교육공간 등은 2005년 5월중에 최종 준공예정에 있다.

* 의대 60주년 소식

의대 60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와 동창회가 협의한 결과 60주년 기념행사를 2005년 9월 9~10일(금~토요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대학적인 행사 일정은 첫째날(2005.9.9.)은 학술대회, 기념식, 연극공연, 음악회, 신축건물 학교안내, 만찬이 있을 예정이고, 둘째(2005.9.10.)은 “이화의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의학교육 심포지움, 재학생 체육대회, 60주년 slideshow, 동창회 행사(외부에서 개최)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의대 60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기념행사의 첫째날 주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멋지고 향축적인 모토가 있으시면 의대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간사 오세관 교수, 2650-57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호응바랍니다.

* 대외협력위원회 활동소식

① 이화여자대학교 학장, 교학부장, 대외협력위원장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장님(지현숙), 부회장(김화숙)님과 2004년 10월 26일에 상견례를 하였으며 이날 2005년도 9월 9일과 10일에 하기로 한 의과대학 60주년 기념사업과 2007년부터 시작 될 이화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후원사업에 동창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동창회에서의 사업은 내년 5월 임원 교체 후에 구체적으로 의논하기로 하였다.

②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자녀를 두신 동문 학부모(약 30분) 대표로 조종남선생님(24회)이 훤히 맡으셨다. 대외적으로 활동이 많으신 가운데도 모교를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모금사업은 물론 대외적으로 필요한 재반사업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다. 조종남선생님은 의과대학 대외협력위원회의 공식 위원으로 선임되시며 동문 학부모 대외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신다.



③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의학전문대학원 발전후원회 가입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기안하였으며 약정금에 대한 사용내역과 세금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정액에 따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부속병원(동대문병원, 목동병원)에서의 의료 혜택에 대한 내용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립학교 기부금은 100% 소득공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④ 동대문병원 발전을 위하여 동대문발전기금을 약정해 주신 선생님들과 이화의학전문대학원 발전후원으로 기숙사 건립기금 및 발전기금을 약정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⑤ 2004년 9월 ~ 2004년 12월의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 현황

1) 기숙사 모금 현황 – 2004년 9월 16일까지의 약정액

육천만원	23회 동기회
이천만원	정화순(교수)
일천오백만원	이경은(약)(교수)
일천만원	강은숙, 김치효, 박수연, 박혜경, 박혜영, 서정완, 성연아, 유경하, 이경자, 이미애, 이지애, 이지희, 이정기, 이화영, 정성민, 정영해, 정혜원, 조영주, 최혜영(방), 한후재, 허정원(이상 교수), 최보원(동창)
오백만원	김경희, 이선화, 이승주, 이시내, 최유원, 한중인(이상 교수)
총계	3억4천5백만원

2)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및 기숙사 모금 현황(2004년 9월~12월)

이천만원	박명요(교수, 목동병원장)
일천오백만원	한운섭, 하은희(이상 교수)
일천만원	김종오, 박미혜, 박은애, 박혜숙, 유권, 이진화, 최규복(이상 교수)
오백만원	김명래, 김영주, 김유경, 김혜순, 심경원, 심기남, 어온경, 오지영, 유은선, 이귀용, 이레나, 임수미, 정성애, 최희정(이상 교수)
삼백만원	이령아(교수)
일백만원	이홍동(일반)
총계	1억9천4백만원

3) 동대문 병원 발전 기금 모금 현황

일억원	윤견일(교수, 의료원장)
오천만원	최혜영(교수)
이천만원	연규월(교수)
일천오백만원	권성원(교수)
일천만원	김윤진, 김종학, 노권재, 박동빈, 백희정, 서정수, 신길자, 유정현, 이순남, 최수승, 헝정희, 홍기숙, 홍영미(이상 교수), 박선옥(결핵관리의사)
오백만원	강소라, 김경효, 김도영, 김성학, 박흥식, 백승연, 조민선, 천은미, 편욱범, 한수정(이상 교수)
사백만원	이수영, 이정희, 정구영, 정혜경, 홍영선(이상 교수)
삼백만원	박기덕, 정구용, 조도상(이상교수), 김광연(사무부장), 김신희(간호사), 김장희
이백만원	김미영(간호사), 김정희(영양과장), 남수연(약제과장), 박춘하(직원), 장석만(총무과장), 정의모(교수), 최병옥(교수)
일백오십만원	권영호(계장), 김남섭(용선계장), 김보영(간호사), 김석호(전산계장), 김선영(간호사), 김정규(기획계장), 김지수(간호사), 김철희(계장), 김현주(간호사), 남순천(간호사), 박혜숙(간호사), 안기주(수간호사), 오영숙(간호사), 윤진희(수간호사), 이경희(계장), 이복우(경리계장), 이임숙(병실조제계장), 임숙현(간호사), 장남옥(수간호사), 장성숙(직원), 전현숙(간호사), 정억선(의공계장), 조강현(교육계장), 조월준(계장), 최수전(보험계장), 한우정(원무계장)
일백만원	김선희(약사), 김성란(주임간호사), 김정숙(간호조무사), 민경미(간호사), 민혜영(간호사), 이미정(주임간호사), 이재순(간호사)
오십만원	김인경(운전원)
총계	4억7천50만원

* 의과학연구소 부문

의 과학연구소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RI실, EM실, 동물실의 사용료가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www.ewmrc.re.kr) 공지사항을 보아 주십시오.

①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의 방사성폐기물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 청구안내

방사성 핵종	반감기	금액
³ H, ¹ C	장반감기(12년 이상)	9만원/구매
³² P, ³⁵ S, ¹²³ I	단반감기(87일 이하)	3만원/구매

② 전자현미경 사용료 변경 안내

구 분	기준수량(1건)	가 격(원)
Block 제작	1~4 Block	18,000
Semithin Section	1~2 Block	5,000 * 1 Block 추가 : 1,000
Thin Section, 전자현미경 색	1 Block	27,000 * 1 Block 추가 : 5,000 * 전자현미경 색만 추가 : 5,000
사진촬영 Filament 사용료	1장	7,000 * Film 촬영 : 5,000 * 사진인화 : 2,000

③ 실험동물실 사용료 변경 안내

① 동물사육비

동물종류	사육기준 (마리수 / cage)	구분 (cage)	가격 (원/cage/일)
Mouse	3마리 이하	1~250	350
		250~500	400
		500이상	450
Rat	3마리 이하	1~100	700
		100~200	800
Hamster	3마리 이하		500
Mongolian Gerbil	5마리 이하		500
Guinea-Pig	3마리 이하		950
Rabbit	1마리		1,000
Cat	1마리		2,000
Dog	1마리		5,000
Pig	1마리		10,000

② 동물구입비

동물종류	Conventional	SPF	내부공급
Mouse	공급 회사와 계통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문의 바랍니다.	연구수요와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내부공급이 가능하며 기준은 외부공급가격에 준합니다.	
Rat	상동	상동	
Hamster	20,000~30,000		
Guinea-Pig	30,000~40,000		
Rabbit	20,000~35,000		
Cat			
Dog	Mongrel Beagle	2만원/Kg 40~50만원/마리	
Pig			

③ 적출물처리비 안내

적출물은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비용은 4000원/Kg입니다.

* 의과대학 새소식

1. 의과대학소식



1) LA의대동창회, 장학금 전달

LA 의대 동창회의 안종옥 선생님께서 지난 12월 10일 의과대학 학장실로 방문 하시어 "LA의대동창회 장학금" \$1,600 을 학장님께 직접 전달 하셨다. LA 의대 동창회에서는 2002년 이후로 매년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부생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있다.

2) 제 16차 이화여대 의료봉사단 활동 예정

제 16차 이화여대 의료봉사단(Ewha Medical Care) 활동을 위하여 단원 모집 등 본격적 준비가 시작되었다. 의과대학 학생 5명을 포함한 이화여대 학생 10명 및 의료진, 병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이번 16차 이화여대 의료봉사단은 오는 2005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근교 등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문의: 동대문병원 정구영 교수, 760-5452, kyung@ewha.ac.kr)



3)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안내소책자 제작

의과대학에서는 2007년 의학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분들은 위해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안내소책자를 발행하였다.

2. 교수 및 의료원 동정

(1) 생리학 교실 하종식 교수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 후'에 3년 연속 등재



하종식(생리학 전공)교수가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5년도 제22판에 등재된다. 2003년부터 연속 3년째 동일 인명사전에 등재되는 하종식 교수는 세포막 생리학 분야의 탁월한 연구 업적과 30여년간 의학 전문인 양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 내과학교실 강덕희 교수, 분수의학상 "젊은 의학자상" 수상



내과학교실의 강덕희 교수 가 제 14회 분수의학상의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하였다. "성별에 따른 신장질환 진행의 차이; 에스트로겐에 의한 혈관 내 피세포 성장 인자의 발현의 조절을 중심으로"란 연구로 학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분수의학상은 한국의 기초의학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과 독일 양국간의 학문적 친선증진을 위해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1990년 4월 공동으로 제정했다.

구한말 한국에서 활동한 최초의 독일인 의사이자 고종황제의 시의였던 리하르트 분수 박사(1869~1911)를 기리는 뜻에서 명명됐다.

(3) 이대목동 병원, 中 연변대학병원과 협약 체결



지난 12월 7일 이대목동병원(원장 박영요)

은 중국 연변대학병원(원장 김해)과 협력조인식을 갖고 두 병원 상호간의 학술 교류와 우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연변대학병원은 지난 1946년 개원해 중국내 최고등급 병원으로 12만평의 대지위에 29과목 755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길림성내 내과연구 중점 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이다. 한편 조인식을 위해 방한한 김 해 병원장은 중국내 통증클리닉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 동창회 소식

이화여자대학교 의대과학동창회에서는 2004년 12월 7일 롯데호텔(소공동점) 2층 에메랄드룸에서 지현숙회장(19회)을 비롯한 90여명의 동창회원과 한운석 의과대학장, 윤건일 의료원장, 박영요 목동병원장, 연규월 동대문병원장이 참석하여 2004년도 동창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제1부 학술강연에는 이화의대 박혜숙교수(40회 예방의학)의 "항산화관련유전자가 임산부의 산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전역학연구."와 이대목동병원 내과 성연아교수(34회)의 "대사증후군"에 관한 강연이 있었으며 2부에는 동창회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 해외교수 동정

IOWA의대 의학 교육학실에 1년 간 연구년으로 나와 있는 한재진입니다. 이곳에서의 네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부터 이곳의 교과과정을 기능하면 체계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의과대학이 많이 평준화되어 있어서(그 이유는 정책적으로 우리 나라의 '의과대학 평가 기구' 같은 Liaison Committee of Medical Education에서 엄격하게 Quality Control를 하는 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의 교과과정은 복미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와 의료 및 교육 환경 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곳의 형편이나 교과과정을 세세히 소개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의 전체적인 소개에 이어서 다음부터는 각 학년의 교과과정에 관해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MEDICAL EDUCATION

아이오와의과 대학의 소개 및 전체적인 교과과정

우선의 대학적인 특징은, 학생들이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교과과정인 self-learning, PBL(여기서는 Case Based Learning), OSCE(여기서는 Performance Based Assessment), small group and peer education 등이 다 있으면서 또한 강의도 만만치 않고 거기에 '모두 끌고 간다'는 소도시 아이오와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 수시로 보는 각종 시험과 상호 평가를 다하려 하니 그 학습의 분량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졸업한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면서 요즈음 우리 나라와는 어느 정도로 비교가 될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아이오와의과대학은 미국 10대 순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학교는 아니지만 의학 교육에 관해서도 잘 짜여지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많은 교수들이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기진, "조용히 잘 해나가는 학교"로 소문이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교과과정이 도입된 1997년 이후에는 USMLE Step 2의 합격률이 계속 99%입니다.(미국 전체 평균 95%) 학생 수는 한 학년이 140명 전후이고 교수 수는 full-time faculty가 700명입니다. 40명의 MD/PHD 프로그램이 있고 전체 학생의 70%가 아이오와 출신이고 40~45%가 여학생이며, 의과대학 설립 연도가 1850년이 더군요.(제가 이화여대를 소개하면서 110년 넘은 학교라고 이야기해도 별로 감동을 안 받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오래된 듯이 자랑하지만 실제로 소중하게 전해지고 전하는 역사의 유산들은 정말 별로 없는 듯 한데 이러한 것도 우리 복사통 현실의 한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년 동안 전체 학습 주는 full-time 149주입니다.

입학하기 직전 여름에 pre-M1 프로그램이 있어서 각 분야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cell biology 등 생명 과학에 관한 최신 지식을 공유하고 시작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1학년(M1)과 2학년(M2)의 2년 동안 기초의학에 관한 공부를 주로 하지만 많은 부분이 임상과 연계한 내용으로 강의 및 실습을 하고 있으며 기초 각 과목간의 Interdisciplinary 비율이 27% 정도입니다. (임상은 36%) 특히 2년을 4학기로 나누어 각 학기마다 독특하게 디자인하여

의과대학소식지 창간호 배부현황

의대소식지 창간호는 의대 교수님과 학생을 비롯, 학생 학부모님과 의대 동창분들을 포함한 그 외 여러분께 3천부를 배부해드렸습니다.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원고 모집

의대소식지는 분기별 발행할 예정이며, 소식지에 실을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seongim1@ewha.ac.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상을 접하게 하는 Foundation in Clinical Practice라는 독립된 프로그램(FCPI-HV)을 기초 과목의 과정과 함께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학기 별로 운영 인력이 독립해 있고 다양한 내용의 강의와 case study, 모의환자를 이용한 교육 및 평가 등이 잘 짜여져 임상을 본격적으로 실습하는 3학년이 되기 전에 모든 학생을 임상 환경에 어느 수준까지 적응을 시켜서 올려 보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 하면 3학년 되기 전에 OSCE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잘 하지 못하면 다시 연습시켜 교정한 후에 올려 보낸다는 식입니다.

그 외에 이 학교의 특징적인 교육 방법으로 Clinician Mentor Program이 있어 1학년부터 임상에 관한 학습을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지도교수제도가 있고, 또 학생들이 공부해 온 것을 서로 가르치게 하는 peer to peer teaching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 4개 학년의 학생들을 둘러 4-student learning community를 만들어서 공부를 서로 도와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개략적인 소개를 마칩니다. 동봉한 파일을 참고하시고 혹시 의문사항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조단(?)해 보겠습니다.

SUGGESTIONS

세계적인 의학교육 개혁의 추진 방향은 다음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 강의 위주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줄이자.
- 암기만이 아닌 합리적 사고를 유도하는 교육 방법으로 전환하자.
-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과 팀을 이루어 사회성 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병행하자.
- 임상에 조기 노출시키고 임상과 연계된 교육을 하자.
- 학생 위주의 교육을 하자.
- 환자 중심의 교육을 하자.
- 지역 사회에 연계된 현장성 있는 교육을 하자.

등등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2007년도에 새로운 교과과정을 시작한다면 어찌피 따라야 할 원칙일 것입니다. 훨씬 열악한 조건의 저희들로서 이런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지와 함께, 개설될 의학교육실의 자원과 기존의 각종 교육 관련 위원회와 또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원칙을 공유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초 및 임상 각 과정의 course director가 정해져서 전체적인 시간 및 과정에 대한 조정을 연구하고, 본 1부터 기획하여 돌릴 수 있는 임상소개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기존의 각 교육 소위원회의 활동을 종, 흉으로 연결하는 연구를 시작하여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감히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송구영신을 맞아 교수님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안녕히 계십시오.

2004-12-17

한재진 올림